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장경오

와이즈유(영산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the Elderly Using Elderly Welfare Center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Avoidance Coping Style

Koung-Oh Chang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Y'sU(Youngs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지지가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G시에 소재한 4곳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392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통계방법은 IBM SPSS/win 26.0 프로그램으로 t-test, ANOVA, Scheff's test,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의 3단계분석 절차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는 5.73 ± 1.23 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적 대처방식은 12.53 ± 3.47 점, 자살생각은 6.21 ± 2.06 점으로 회피적 대처방식과 자살생각의 점수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자살생각은 사회적지지($r = -.151, p = .004$)와 음의 상관관계 있었으며, 회피적 대처방식과($r = .315, 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회피적 대처방식은 사회적지지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 = -2.97, p < .001$).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역 및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at welfare center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avoidance coping style.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survey of 392 elderly people at four elderly welfare centers located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1 to November 8, 2019, and analyzed using the IBM SPSS/win 26.0 program by t-test, ANOVA, and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mediating effect wa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Baron and Kenny's 3-step analysis procedure. Social support of the subjects was found to be high with an average score of 5.73 ± 1.23 , avoidance coping style with 12.53 ± 3.47 points, and suicidal ideations with 6.21 ± 2.06 points.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suicidal ideation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r = -.146, p = .004$) and avoidance coping style ($r = .315, p < .001$), and these correla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The avoidance coping style of the elderly using the welfare centers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Z = -.270, p < .001$). Therefore, to prevent negative emotions such as suicidal ideations in the elderly, various policies and support programs at the local and government level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ed.

Keywords : Avoidance Coping Style, Elderly, Mediating Effect, Social Support, Suicidal Ideation

본 논문은 와이즈유(영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Koung-Oh Chang(Youngsna Univ.)

email: chko1015@ysu.ac.kr

Received February 9, 2021

Revised March 22, 2021

Accepted June 4, 2021

Published June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 조사[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03만 명으로 16.1%, 2030년 1,268만명으로 25.5%, 2040년 1,666만명으로 34.3%으로 향후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는 가족주의에서 성장하여 노년기에 대한 불안감은 적었으나, 현재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개인주의에 따른 문화적 변동과 함께 도래하는 노년기는 곧 고독한 삶을 의미하며, 신체적 변화, 정서적 소외감,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2]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에 대한 노인 개인과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준비 부족[3]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비교해 볼 때 노인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다[4] 하겠다. 특히 65세를 기점으로 사회적 행동반경이 좁아져 생산활동과 사회적지지가 부족해 짐으로[4]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사회관계망 즉 사회적지지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줄이며, 관계를 통하여 얻는 정서적 위안, 충고, 물질적 원조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5].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와 정적 정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5], 높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인 신체적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능장애를 줄이고 사망률을 낮춘다[7]. 하였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전반적으로 사회관계망이 축소됨으로 비공식 관계망인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비공식 관계망의 축소 및 제한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노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대부분 소극적인 회피적인 대처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

회피적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려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의미한다[9]. 인간은 누구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 행동을 하는데, 어떤 대처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적응에 영향을 준다[10].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위기상황에 직면할 때 성인들은 청소년에 비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거나 다른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를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는 회피적

대처방식을 동시에 사용한다[11]. Endler와 Parker[12]는 대처방식을 크게 과제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적 대처방식으로 나누었으며, 그 중 회피적 대처방식이 자살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Ben-Zur[13]는 회피적 대처방식이 긍정정서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정정서와는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하였으며, Kim과 Kwon[14]는 연구에서 남녀 노인 모두에게서 회피적 대처방식이 자살생각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정적인 대처방식은 노인의 우울증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와 많은 연관성이 있다[15].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요인 중 하나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령의 증가는 자살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16].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빠른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재, 노인의 자살률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자살에 대한 기제를 이해하고 노인 자살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17]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18]에 따르면, 노인의 자살생각률은 전체 6.7%으로 남자노인 6.1%, 여자노인 7.1%, 자살생각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27.7%, 건강문제가 27.6%. 다음이 부부, 자녀, 친구 갈등 및 단절이 18.6%로 정서 및 사회적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살생각과 이유에 있어서 경제,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및 사회적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살시도율은 전체 13.2%로 남자노인 15.7%, 여자노인 11.6%로 남자노인의 자살시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살생각은 자살행위를 예측하는 주요 지표로 자살행위를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행위라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15]. 그러므로 가벼운 자살생각이 자살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노인일수록 더 확실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는 자살생각이 자살을 시도하기 이전 단계로, 자살시도와 자살 전에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19] 의미한다.

지금까지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노인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모임 수와 가족지지가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20],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는 긍정적 정서로 영향을 미치며[6,21], 노인의 사회적지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또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과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완충효과있으며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준다[22,23]. 정

신건강상태가 열악한 남성 독거노인에서 사회적지지는 자살충동이라는 부정적 요인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된다 [21]. 그리고 노인의 마음챙김과 자살생각에 대해 사고의제와 회피적 대처방식을 매개효과로 연구한 Kwon과 Park[17]은 회피적 대처방식이 마음챙김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인 회피적 대처방식을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며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지만, 이에 앞서 우선 사회적지지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노인의 부정적 정서인 회피적 대처방식이 두 변수인 사회적지지와 자살생각에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우울과 자살생각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지지가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회피적 대처방식,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회피적 대처방식, 자살생각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회피적 대처방식,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4곳을 이용하는 노인 392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8일 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G시의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하고 서면에 동의한 노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수집된 자료는 비밀보장이 됨과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시 참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알려주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대상자들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연구보조원 3명에게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측정방법과 측정도구의 사용에 대해 2회에 걸쳐 1시간씩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노인 스스로 작성하거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원과 연구보조원 4명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읽어주고 표기하는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전체 410부를 설문조사 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8부를 제외한 392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시간은 15~20분정도 소요되었다.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예상독립 변수 : 12)의 표본크기 산출을 근거로 검정력을 산출한 결과, 양측검정으로 유의수준 $\alpha=.05$, 효과크기 $=.07$, 검정력 $1-\beta=.95$ 으로 산출하였을 때 표본 수는 381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는 392명으로 표본크기는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조사 대상자가 그들의 비공식적 지지체 제안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측면들-존경 및 애정 등의 정서적지지, 정보 및 지식 형태의 인지적지지, 경제적 혹은 물질적지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을 미국의 사회적지지 척도인 ENRICHD Social Instrument(ESSD)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보지지, 도구적지지, 정서적지지를 포함한 6개 항목의 사회적지지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 “예” 혹은 “아니오”의 단답형 응답으로 조사하였다. 각 항목별 “예”의 응답에 1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합산하여 사회적

지지 점수를 산출하였다. 최저 0점에서 최고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26$ 이었다.

2.3.2 회피적 대처방식

회피적 대처방식 측정도구는 Holahan과 Moos [24]의 대처전략 질문지를 You와 Kwon[25]이 번안, 수정한 질문지를 Kim과 Kwon[26]가 9문항으로 수정·보완한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냈다,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두었다, 평소보다 음식을 더 많이 먹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 사람들과 있는 것을 피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하였다, 평소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웠다, 평소보다 잠을 더 많이 잤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과 Kwon[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00$ 이었다.

2.3.3 자살생각

자살생각 측정도구는 Harlow, Newcomb와 Bentler[27]등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가지 문항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 최근 자살에 대한 생각, 죽고 싶다고 타인에게 말해본 경험, 자살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과 실제 자살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5점 리커트식 척도인 자기보고식 검사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들에서 활용되었던 4점 리커트식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Kim과 Kwon[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01$ 이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6.0 Program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사회적지지, 회피적 대처방식 및 자살생각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회피적 대처방식 및 자살생각은 일원 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s

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회피적 대처방식 및 자생각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28]의 3단계 분석절차에 따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검증하였고, Sobel test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326명(83.2%)으로 많았고, 평균연령은 73.0 6세로 65~69세가 149명(38.0%)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사별이 245명(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무학이 232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 수는 1~3명이 328명(8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은 322명(84.7%)으로 많았다. 주관적 건강은 보통이 188명(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거형태는 혼자사는 경우가 143명(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없는 경우가 320명(81.6%)으로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en	66	16.8
	Female	326	83.2
Age (yr)	65 - 69	149	38.0
	70 - 74	71	18.1
	75 - 79	111	28.3
	80 - 84	61	15.6
	Average	73.06±5.36	
Marital status	Married	138	35.2
	Bereaved	245	62.5
	Etc	9	2.3
Education level	None	232	59.2
	Elementary school	96	24.5
	Middle school	39	9.9
	High school ≤	25	6.4
Number of family	1 - 3	328	83.7
	4 ≤	64	16.3
Disease	Yes	332	84.7
	No	60	15.3
Subjective health	Very good	10	2.6
	Good	65	16.6

status	Fair	188	48.0
	Poor	113	28.8
	Very poor	16	4.1
Living with	Living alone		
	Living with spouse	143	36.5
	Living with sone & daughter couple	109	27.8
		94	24.0
	Living with grandson & granddaughter	9	2.3
	Others	37	9.4
Occupatio n	Yes	72	18.4
	No	320	81.6

3.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회피적 대처방식, 자살생각 정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적지지는 점수범위가 최저 0점에서 최고 6점으로 평균점수 5.73± 1.23점이었으며, 회피적 대처방식은 점수범위가 최저 9점에서 최고 36점으로 평균점수 12.53±3.47점이었다. 그리고 자살생각은 점수범위가 최저 5점에서 최고 20점으로 평균점수 6.21±2.0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Social Support, Avoidance Coping Style and Suicidal Ideation (N=392)

Variables	Rating scale	M±SD
Social Support	0 - 6	5.73±1.23
Avoidance Coping Style	9 - 36	12.53±3.47
Suicidal Ideation	5 - 20	6.21±2.06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회피적 대처방식, 자살생각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사회적지지는 결혼상태(F=17.587, p<.001), 자녀 수(t=3.956, p=.047) 그리고 동거형태(F=3.199, p=.01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 결과, 결혼상태는 별거인 경우가 사별,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기타(미혼, 이혼, 별거)보다 사회적지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형태는 아들과 딸 부부와 사는 경우가, 기타(가족 이외의 사람), 손자와 손녀, 배우자 그리고 혼자서 사는 경우보다 사회적지지 점수가 높은 것으로

Table 3. Difference of Social Support, Avoidance Coping Style and Suicidal Ide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Social support		Avoidance Coping Style		Suicidal Ideation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en	5.53±1.60	2.029	13.12±3.53	2.352	6.56±2.40	2.340
	Female	5.77±1.14	(.155)	12.41±3.45	(.126)	6.14±1.95	(.127)
Age(yr)	65~69 ^a	5.77±1.09		13.89±3.49		6.51±2.30	
	70~74 ^b	5.66±1.39	0.244	12.66±3.97	22.668	5.96±2.07	1.799
	75~79 ^c	5.67±1.36	(.866)	11.99±2.89	(<.001) ^a	6.09±1.75	(.147)
	80~84 ^d	5.80±1.08		10.00±1.71	b	6.00±1.74	
Marital status	Married ^a	5.76±0.10	17.587	12.89±0.29	4.787	6.37±0.70	12.088
	Bereaved ^b	5.79±0.08	(<.001)	12.22±0.22	(.009)	6.01±0.13	(<.001)
	Etc ^c	3.44±0.39	a,b<c	15.33±1.14	a<c	9.22±0.66	a<e
Educational level	None ^a	5.70±0.80		12.13±0.22		6.15±0.13	
	Elementary school ^b	5.85±0.12	0.825	13.01±0.35	4.666	6.25±0.21	0.459
	Middle school ^c	5.51±0.20	(.481)	12.23±0.55	(.003)	6.23±0.33	(.711)
	High school≤ ^d	5.80±0.24		14.44±0.68	b<d	6.64±0.41	
Number of children	1-3	5.67±0.07	3.956	12.74±0.19	7.891	6.32±10.11	5.768
	4≤	6.00±0.15	(.047)	11.42±0.43	(.005)	5.66±0.25	(.017)
Disease	Yes	5.68±1.33	3.11	12.66±3.49	3.120	6.23±2.07	0.105
	No	5.98±0.13	(.078)	11.80±3.25	(.078)	6.13±1.86	(.746)
Subjective health	Very good ^a	5.40±1.90		13.20±3.55		6.30±2.26	
	Good ^b	5.35±1.87		13.85±4.14	3.680	6.57±2.35	
	Fair ^c	5.24±0.97	2.213	12.46±3.33	(.006)	6.15±1.99	0.624
	Poor ^d	5.81±0.98	(.067)	11.84±3.04	a<b	6.11±1.89	(.645)
	Very poor ^e	5.63±1.50		12.53±3.47		6.13±2.16	
Living with	Living alone ^a	5.48±1.65		12.67±3.67		6.34±2.20	
	Living with spouse ^b	5.72±1.26	3.199	12.98±3.69		6.33±2.12	
	Living with sone & daughter couple ^c	6.00±0.00	(.013)	12.00±3.12	1.343	5.86±1.71	0.950
	Living with grandson & granddaughter ^d	5.90±0.32	c>e	11.56±2.65	(.253)	6.22±2.11	(.435)
	Other ^e	5.95±0.23		12.19±2.82		6.21±1.84	
Occupation	Yes	5.82±1.00	0.537	12.67±3.52	3.123	6.36±2.13	0.475
	NO	5.70±1.26	(.464)	11.88±3.17	(.078)	6.18±2.02	(.491)

나타났다. 회피적 대처방식은 연령($F=22.668, p<.001$), 결혼상태($F=4.787, p=.009$), 교육수준($F= 4.666, p=.003$), 자녀 수($F=7.891, p=.005$) 그리고 주관적 건강($F=3.680, p=.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은 적을수록 회피적 대처방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상태는 기타(미혼, 이혼, 별거)인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사별의 경우보다 회피적 대처방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은 좋은 경우가 매우 좋고, 매우 나쁜 경우 보다 회피적 대처방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은 결혼상태($F=12.088, p<.001$)와 자녀수($t=5.768, p=.01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기타(미혼, 이혼, 별거)의 경우가 배우자가 있고 사별의 경우보다 자살생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회피적 대처방식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회피적 대처방식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살생각은 사회적지지($r=-.146, p=.004$)와는 음의 상관관계, 회피적 대처방식($r=.315,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Variables	Social support	Avoidance coping style	Suicidal ideation
	r(p)	r(p)	r(p)
Social support	1		
Avoidance coping style	-.170(<.001)	1	
Suicidal ideation	-.146(.004)	.315(<.001)	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Avoiding Cop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N=392)

Step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VIF	R ²	adj.R ²	F
1	Social support	Avoidance coping style	-.485	.142	-.170	-3.408**	1.000	0.029	0.026	11.611**
2	Social support	Suicidal ideation	-.244	.084	-.146	-2.911*	1.000	0.021	0.019	8.476*
3	Social support	Suicidal ideation	-.159	.080	-.095	-1.956*	1.030	0.108	0.103	23.524**
	Avoidance coping style		.175	.029	.299	6.416**	1.030			

3.5 대상자의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이 매개변수임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다.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Durbin-Watson 지수는 1.909로 2에 가까워 각 독립변수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tolerance)는 0.97~1.000으로 모두 0.10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00~1.030으로 모두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Baron과 Kenny[28]의 3단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독립변수인 사회적지지에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1단계의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수인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수인 회피적 대처방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485, p < .001$), 설명력(R^2)은 .029였으며, 회귀식 F값은 11.611($p < .001$)으로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인 사회적지지가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 = -.244, p < .05$), 설명력(R^2)은 .021이었고 회귀식 F값은 8.476($p < .05$)으로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예측변수인 사회적지지와 회피적 대처방식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사회적지지($\beta = -.159, p < .05$)와 회피적 대처방식($\beta = .175, p < .001$)이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통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R^2)은 .108으로서 사회적지지와 회피적 대처방식이 자살생각에 대해 10.8%를 설명하였으며, 회귀식 F값은 23.524($p < .001$)으로써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증에 Sobel test를 통해 유의도 검증을 한 결과, $Z = -2.97$,

Sobel test : $Z = -2.97, p < .001$

* $p < .05$, ** $p < .001$

$p < .001$ 로 -1.96 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회피적 대처방식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은 부분매개효과 변수임을 검증하였다 (Table 5),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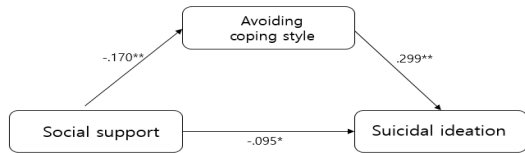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 of Avoiding Coping 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4. 논의

본 연구는 일개 시 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점수범위가 최저 0점에서 최고 6점으로 평균점수가 5.73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도구가 달라 적절한 비교는 어려우나 Kim과 Um[29]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점수범위가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으로 평균점수가 각각 42.71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Kim과 Lee [30]의 연구에서 최저 11점에서 최대 55점으로 사회적지지 평균점수가 38.77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겠다. 하지만 Lee, Kim과 Nam[3]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평균점수가 4.69점으로 매우 낮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사회적지지는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노인이 취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호혜적인 모든 자원이다[30].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는 전체 392명의 연구대상자가 집에만 외롭게 있지 않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며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사회적지지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동거형태에서 혼자사는 경우가 143명으로 배우자와 사는 경우 109명, 아들과 딸의 부부와 사는 경우가 94명, 손자와 손녀 그리고 다른 누군가와 사는 경우가 각각 9명, 37명으로 전체 249명이 혼자서 살지 않고 다른 누군가와 살면서 그들로부터 심리적 안정과 물질적 지원체계를 공유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된다. 그러므로 노인이 외롭지 않게

사회적지지 체계가 확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은 점수범위가 최저 9점에서 최고 36점으로 평균점수가 12.53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Sung[31]의 연구에서 점수범위가 최저 0점에서 최고 3점으로 회피적 정서중심대처의 평균점수가 1.41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겠다. 하지만 조기발편(초로기) 치매환자를 돌보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Jang과 Yoon[32]의 연구에서 현재 상황 회피의 7문항에서 평균점수 3.17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회피적 대처방식은 상황에 직면하기를 회피하거나 부정적 정서로 표현되는 소극적 방법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방치하지 말고 긴장감을 줄이고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점수범위가 최소 5점에서 최고 20점으로 평균점수 6.21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Han과 You[33]의 연구에서 자살생각 점수범위가 최소 0점에서 최대 12점까지로 평균점수 1.36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Bae[34]의 연구에서 전체 연구대상자 4,749명 중 180명이 자살생각을 한 것으로 평균점수가 3.8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겠다. 하지만 Kwon과 Hur[35]의 연구에서 점수 범위 최소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평균점수 2.79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자살생각은 자살 시도 및 자살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살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다[36]. 자살생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소속감이 충족되지 못할 때 경험한다[37]. 그러므로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지 않도록 가족, 지역사회 및 정부차원에서 노인들의 소속감이 생길 수 있도록 심리 및 정서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결혼상태, 자녀 수, 동거형태였다. 결혼상태는 별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기타(미혼, 이혼, 사별)보다 사회적지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형태는 아들과 딸 부부와 사는 경우가 손자와 손녀, 배우자와 사는 경우, 혼자서 사는 경우보다 사회적지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5]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성별, 경제활동 상태, 거주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광역시와 도지

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서울 거주자보다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또한 Han[41]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에서 가족지지는 종교, 배우자, 자녀동거 유무에서, 친구지지는 종교 유무, 이웃 지지는 취미, 종교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사회적지지만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사회적지지가 높은 노인일수록 노화대처 수준이 높다[3]. 따라서 노인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상호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피적 사고방식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자녀 수, 주관적 건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적을수록, 결혼상태는 기타(미혼, 이혼, 별거)의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사별의 경우보다 회피적 대처방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은 좋은 경우가 매우 좋고, 매우 나쁘며, 보통의 경우보다 회피적 대처방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결혼상태, 자녀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타(미혼, 이혼, 별거)인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사별보다 자살생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hin과 Back[20]의 연구에서 성별, 종교, 주관적 경제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좋거나 혹은 매우 좋다고 한 경우보다 자살생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또한 Son과 Moon[38]의 연구에서 성별, 교육수준, 건강수준, 가구형태, 사별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자살생각은 막연한 죽고 싶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죽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아직 실행하지 않은 상태까지를 포함한다[39]. 또한 우울은 노인자살과 연관이 있는 결정적인 위험요인으로[22] 자살시도와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가족, 사회적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회피적 대처방식, 자살생각의 상관관계에서 사회적지지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회피적 대처방식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살생각은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회

피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hin과 Back[20]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인 사회 모임 수, 가족지지와 자살생각이 각각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여서 사회적 모임 수가 적고 가족의 지지가 적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하겠다. 하지만 Kwon과 Park[40]의 연구에서는 자살생각과 회피적 대처방식이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노인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은 장애 노인일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며[41], 대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노인들의 자살생각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6배 높다고 하였다[42]. 그러므로 노인들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먼저 심리적 위축, 타인에 대한 의존성, 고립감과 상실감 등을 잘 관찰하여 부정적 정서인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크리닝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지지 그리고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3단계에서는 예측변수인 사회적지지와 회피적 대처방식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사회적지지와 회피적 대처방식이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통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 매개효과와 결과는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지지는 자살생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회피적 대처방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지지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회피적 대처방식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Kwon과 Park[17]의 연구에서 매개요인인 회피적 대처방식이 마음챙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im과 Kwon[14]의 연구에서 남녀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 관계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을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하겠다.

따라서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복지관 이용 노인의 회피적 대처방식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에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회피적 대처방식은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처방식이다[17].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나 문제의 발생 시 일반적으로 우울과 자살생각이 동시에 동반하게 되는데,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전략으로 부적응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43]. 그러므로 노인의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 정서

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원 및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적 사고방식과 자살생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자살생각은 사회적지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회피적 대처방식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 노인의 회피적 대처방식은 사회적지지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이 유의한 부분매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 우울, 회피적 대처방식, 자살생각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 및 정부차원에서 지역사회 노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살예방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신건강 향상과 부정적인 정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노인은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등의 기관을 통한 사회적지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할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시 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지역사회 노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노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대학,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변수를 고려한 추후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Population forecast of domestic and foreign residents reflecting the special estimate of

future population in 2019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20 [cited 2021 February 3].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624

- [2] B. G. Kim, "The effect of stress on depress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self-respec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19, No 6, pp. 281-291, 2019.
DOI: <https://doi.org/10.5392/IJCA.2019.19.06.281>
- [3] D. G. Lee, C. P. Kim, S. I. Na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ging anxiety : doubl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and coping on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2, No. 2, pp. 323-348, 2017.
DOI: <https://dx.doi.org/10.21194/kjgsw.72.2.201706.323>
- [4] C. S. Han, "The Effect of Elderly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Intermediation of self-resp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Hanyoung University, Seoul, 2021.
- [5] H. E. Park, "Health status and social suppor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2019 Korean Society of Senior Welfare Spring Conference*,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Gunsan City, Korea. pp. 231-245, 2019. 6.
- [6] M. H. Cho, J. Y. Chang, K. Ryu, J. I. Ri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depression, future time perspective, active aging on emotional change after indirect disaster experience among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No. 21, No. 4, pp. 671-696, 2015.
DOI: <https://dx.doi.org/10.20406/kjcs.2015.11.21.4.671>
- [7] C. G. Kim, M. S. Sung,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the elderly people: perceived conception of health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Vol. 9, No. 1, pp. 133-143, 2002.
- [8] J. S. Kim, E. J. Kim, "The relationships among harm avoidance, psychological control and depression: mediation role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voidance cop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0, No. 6, pp. 851-862, 2019.
DOI: <https://dx.doi.org/10.22143/HSS21.10.6.61>
- [9] K. C. Cukrowicz, E. K. Ekblad, J. S. Cheavens, M. Z. Rosenthal, T. R. Lynch, "Coping and thought suppression as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depressed older adults with personality disorders", *Aging and Mental Health*, Vol. 2. No. 1, pp. 149-157, 2008.
DOI: <https://dx.doi.org/10.1080/13607860801936714>
- [10] R. S. Lazarus,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1984.
- [11] J. S. Park,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areer risk on excessive use of internet for rural adolescents, through depression and withdrawal coping", *Korean*

-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8, pp. 21-43, 2011.
- [12] N. S. Endler, J. D. A. Parker,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No. 5, pp. 844-854, 1990.
- [13] H. Ben-Zur, Hasida, "Coping styles and a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Vol. 16, No. 2, pp. 87, 2009.
- [14] H. J. Kim, J. H. Kwon,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of Life and Suicide Ideation: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voidance Coping Sty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1, No. 2, pp. 589-606, 2012.
DOI: <https://dx.doi.org/10.15842/kjcp.2012.31.2.011>
- [15] D. Harwood, R. Jacoby, "Suicidal behavior among the elderly, In Keith Hawton(E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NY: John Wiley & Son. Ltd.
- [16] J. Xu, K. D. Kochanek, S L. Murphy, B. Tejada- Vera, "Deaths: final data for 2014",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Central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Vol. 65, No. 4, pp. 1-122, 2016.
- [17] E. J. Kwon, K.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thought suppression and avoidance cop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23, No. 1, pp. 187-201, 2016.
- [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ternet]. Seoul: 2017 senior surve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ed 2021 February 3].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1_013&conn_path=J3
- [19] Y. Conwell, "Suicide in later life: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preven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31, No. 1, pp. 32-47, 2001.
DOI: <https://dx.doi.org/10.1521/suli.32.24221>
- [20] J. I. Shin, S. H. Back,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in elderly attending community senior centers", *Journal of Agric Medicine Community Health*, Vol. 38, No. 2, pp. 71-84, 2013.
DOI: <https://dx.doi.org/10.5393/JAMCH.2013.38.2.071>
- [21] Y. U. Cho, C. K. Ha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among Elderly man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analyzing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4, No. 4, pp. 295-320, 2014.
DOI: <https://dx.doi.org/10.15709/hswr.2014.34.4.295>
- [22] E. Y. Choi, H. L. Yoon, K. H. Lee, H. L. Shin, S. W. Park, H. Y. Lee, Y.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literacy and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2, No. 3, pp. 251-282, 2017.
DOI: <https://dx.doi.org/10.21194/kjgsw.72.3.2017.09.251>
- [23] S. B. Kim, S. S. Choi, Y. G. Song,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victims of disaster",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4, No. 2, pp. 9-34, 2019.
DOI: <https://dx.doi.org/10.21194/kjgsw.74.2.201906.9>
- [24] C. J. Holahan, R. H. Moos, R. H.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No. 5, pp. 946-955, 1987.
- [25] S. E. You, J. H. Kwon,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social support, stress and coping style on depression in the middle-aged woma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6, No. 6, pp. 67-84, 1997.
- [26] H. J. Kim, J. G. Kwon,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of life and suicide ideation: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voidance coping sty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1, No. 2, pp. 589-606, 2012.
DOI: <https://dx.doi.org/10.15842/kjcp.2012.31.2.011>
- [27] L. L. Harlow, M. D. Newcomb, P. M. Bentler,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42, No. 1, pp. 5-21, 1986.
- [28]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 [29] D. S. Kim, M. Y. Um, "The effects of post-traumatic stress on maladaptation of disaster victims who experience fire damage in old ag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75, No. 4, pp. 61-90, 2020.
DOI: <https://dx.doi.org/10.21294/kjgsw.75.4.202012.61>
- [30] Y. E. Kim, Y. S. Le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elderly people using welfare center on happiness.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72, No. 4, pp. 217-238, 2017.
DOI: <https://dx.doi.org/10.21194/kjgsw.72.4.201712.217>
- [31] M. O. Sung, "A Study on the Coping Style and Stress Response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6, No. 1, pp. 51-67, 2009.
- [32] S. M. Jang, S. M. Yoon, "A concept map of psychological difficulties and coping strategies experienced by spouses of early-onset dementia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5, No. 6, pp. 1115-1142, 2020.
DOI: <https://dx.doi.org/10.17315/kjhp/2020.25.6.004>
- [33] J. M. Han, S. E. You, "The moderating effect of

reasons for living on the relation between thwarted interpersonal needs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 19, No. 4, pp. 445-465, 2019.

DOI: <https://doi.org/10.33703/cbtk.2019.19.4.445>

- [34] G. I. Bae. “Eco-systematic approach to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focused on the group comparison according to their suicidal ideation in the previous yea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9, No. 3, pp. 35-63, 2017.
DOI: <https://doi.org/10.20970/kasw.2017.69.3.002>
- [35] O. G. Kwon, J. S. Hur, “A study on the causal model of suicide ideation among the low-income elderly persons who living alon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hopelessness”,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Vol. 41, No. 4, pp. 65-93, 2013.
- [36] M. M. Silverman, A. L. Berman, N. D. Sanddal, P. W. O’Carroll, T. E. Joiner, “Rebuilding the tower of babel: A revised nomenclature for the study of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s Part 1: Background, rationale, and methodolog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37, pp. 248-263, 2007.
DOI: <https://dx.doi.org/10.1521/suli.2007.37.3.264>
- [37] E. S. Sheidman, “Further reflections on suicide and psychach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8, pp. 245-250, 1998.
- [38] E. S. Son, S. K. Moon, “Factors affecting th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of the elderly at risk for depression: focused on chungcheongnam-do”, *Crisisonomy*, Vol. 9, No. 11, pp. 133-154, 2013.
- [39] R. W. Maris, A. L. Berman, M. M. Silverman, “Comprehensive textbook of suicid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2000.
- [40] E. J. Kwon, K.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thought suppression and avoidance cop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and suicidal ideation in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Vol. 8, pp. 232.-232, 2013.
- [41] S. Y. Heo, H. M. Kim,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Deta Analysis Society*, Vol. 18, No. 4, pp. 2135-2147, 2016.
- [42] L. L. Tan, H. B. Wong, “Severity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s among elderly people in singapor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Vol. 20, No. 2, pp. 338-346, 2008.
DOI: <https://dx.doi.org/10.107/s1041610207005789>
- [43] G. U. Kim, J. H. Kwon, E. J. Yang, “The moderation effect of avoidance coping strategy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nflict and depression: the comparison of avoidance copings strategies in online and offline spac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8, No. 2, pp. 279-294, 2013.
DOI: <https://dx.doi.org/10.18205/kpa.2013.18.2.002>

장 경 오(Koung-Oh Chang)

[정회원]



- 2003년 8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91년 6월 ~ 1995년 10월 : 경상대학교 병원 간호사 근무
- 1996년 10월 ~ 2013년 2월 : 양산시, 진주시보건소 근무
- 2012년 3월 ~ 2014년 1월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와이즈유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 노인간호, 정신간호